다양한 문화의 융합으로 만들어진 석굴암

최경원
디자인 문화 이론가,
출강;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등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및 동 대학원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현”이라는 이름을 건 작업실에서 각종저술 작업과 여러 매체에 원고를 기고하고 있다. 디자인은 문화적 소산이라는 일념으로 한국전통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수년간 전국에 숨어있는 역사적 산물들이나 책갈피에 끼어있는 과거들을 헤집고 다니게 되었다. 저서로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Good Design / 길벗”(2004년 출간, 현재8쇄발행), “Great Designer 10 / 길벗”(2005년 출간, 현재 3쇄발행, 2006년 7월 첫째주 교보문고 예술분야 1위), “붉은색의 베르사체 회색의 아르마니 / 길벗”(2007년 출간, 현재 3쇄 발행, 2008년 5월20일 네이버 오늘의 책에 선정) “르 코르뷔지에 vs 안도 타다오 / 숨비소리”(2007년 발간) 등이 있다. 이중 “Great Designer 10”과 “붉은색의 베르사체 회색의 아르마니”는 대만에서 출간예정이다. 현재는 한국문화재를 디자인적 시각에서 해석한 책과 CEO를 위한 디자인, 각국의 문화와 디자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다.

Seokguram Grotto:
Convergence of Works by Various Cultures

CHOI, Gyeong-won
Design Culture Theorist,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etc.

He earned B.A. and M.A. degrees from the Dept. of Industrial Design in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now teaches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 He has written many journals and articles in his studio, "Hyeon." With a lifetime goal of modernizing Korean tradition in a belief that design is the product of culture and civilization, he has thoroughly investigated the past and historical facts, visiting every corner of the country. Right now, he is writing a book that reinterprets Korean cultural heritage from a design perspective and books about design for CEO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culture and design.

간단하지 않은 창의력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서 창의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갖가지 모색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창의력을 단지 인간능력 개발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창의력은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나 운동선수들의 기량강화훈련과 같은 방식으로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의 창의력은 문화, 사회, 전통 등 개인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광범위한 문제들과 횡으로, 종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개인의 창의력을 종종 시대가 이끌기도 한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갑자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창조적 재능을시대가 개인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은 개인의 능력이란 범주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문제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입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창의력이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 창의력은 우선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과 창의력의 결과물이 끼치는 사회적 기여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창조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일이다. 창의력을 타고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들어진 결과물

It can be said that creativity is ‘cultural competency’ that can differ depending on cultural background and philosophical attitudes instead of an individual’s skills or capability.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 예술가의 한 사람인 미켈란젤로의 씨스틴 성당 벽화

—

Athletic figure on the ceiling of the Sistine Chapel at the Vatican in Rome by Michelangelo, one of the three greatest artists of the Renaissance period

Profound and Mysterious Creativity

Creativity has emerged as a major driving force for social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many plans to develop creativity have been released. If approach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evelopment of human competency, it is hard to get significant results. After all, creativity can not be handled the same as technology development or athletic skill training. Meanwhile, individual creativity is horizontally and vertically connected with extensive problems that far exceed the scope of individuals such as culture, society and tradition. Therefore, individual creativity is sometimes led by the contemporary age. As many gifted artists were born during the Renaissance in the 15th century, it seems reasonable to say that the era itself can bring creative talents to individuals.

Therefore, creativity should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nection to many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as well as individual competency. In fact, creativity can not be easily defined. After all, creativity is complicated, as mentioned above, and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ose who show creativity and the results of creativity on society.

First, creation is making something out of nothing. Regardless of whether we are born with creativity or not, it is not easy to make something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When we see the new creation, it might appear easily inventible. However, it really requires great effort and devotion and the process can be like passing through a long dark tunnel without lamplight to get to the result. Like the old saying,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creativity greatly depends on an individual’s experience.

No matter how gifted a person you are with sparkling creativity, you are going to create something new based on your experienc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many good experiences to improve creativity. Specifically speaking, it is essential to accept and develop the best of the best cultural achievements and take historically verified value, so-called ‘tradition,’ as your own value.

As they say, ‘An uncut gem does not sparkle.’ In the same way, the task is not completed merely because you have had many experiences. You need to have the skill to cut gem stones based on your experiences. Actually, making good use of experiences is as important as accumulating them. After all, it is philosophy that plays a key role in taking advantage of experiences.

In other words, the level of creativity greatly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philosophy of those who are engaged in creative activiti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reativity is ‘cultural competency’ that can differ depending on cultural background and philosophical attitudes instead of an individual’s skills or capability.

을 보면 쉽지만, 그것이 나오기 까지는 어둡고 긴 터널을 등불 하나 없이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하지만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처럼, 창조능력은 우선 창조하는 사람이 흡수한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난 천재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창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대 최고의 문화적 성취와 역사적으로 검증된 가치 즉, 전통을 흡수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보고 들은 것만 많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료만 있다고 요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경험된 막대한 내용들을 한 줄로 꿸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경험으로 확보된 자원을 융합하는 문제는 좋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 융합의 문제에서 열쇠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말하자면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의 철학 수준에 따라 창의력의 수준도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이처럼 창의력은 한 개인의 단순한 기능이나 역량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과 철학적 태도에 따라 격이 달라지는 '문화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창의력의 결과물들이 어떤 문화적 기여를 하는지도 창의력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창의력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사안인데,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창조물들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사회와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극소수의 것들이다. 사실 창의력이 그저 고만고만한 결과만 가져왔다면 아무도 창의력에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한 결과물들 중에 많은 것들은 사회와 문화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킨다. 창의력이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창의력의 바로 이런 기여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적 능력에서 요구되는 것은 얄팍한 기발함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보면 창의력은 그 사회의 문화적인 성취나 체험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회가 이룩한 여러 성취가 개인을 통해 집대성되고 구체적으로 발휘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겠다. 사회적으로 축적된 문화적 역량은 때론 평범한 개인도 수퍼맨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축적된 전통이나 문화적인 역량을 개인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Meanwhile, the contribution of the results of creativity to culture is also very important. In fact, it is why society needs creativity. In this world, a great number of creations are produced by many people. However, there are very few that survive and transform society and culture.

If creativity produces only common results, no one would take it seriously. However, many creations produced by humans have remarkably transformed human society and culture. Because of this kind of significant impact and contribution, creativity has recently drawn great attention from people. Therefore, the social and cultural impact of the creation, rather than shallow novelty, is what matters in creativity.

As shown above, creativ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cultural achievements and experiences of society. In other words, it is fair to say that great achievements accomplished by society are embraced and specifically displayed through individuals.

The long cultural competence accumulated in society sometimes makes a common individual a superman. In terms of creativity, therefore, how an individual should utilize the accumulated social tradition or cultural values is more important than how to strengthen the individual's creativity.

The Social Sublimation of Creativity

In world history, individual creativity was often led by social creativity. In addition to the Renaissance era, the Bauhaus era in Germany and the Memphis period in Italy were times in which many geniuses were born.

In Korea, the early United Silla and late Joseon (17th and 18th centuries) periods belong to this era. After all, the glorious era of creation was entered into by upgrading the legacies from the past, not just integrating them. If we take a close look at these periods, we will gain insight into how the creative competency of the era can be utilized and how an individual's creativity can bring brilliant culture to society. In addition, we will have clear goal consciousness on why creativity is needed and which role we need to play in gaining it. After all, it is Seokguram that is the most brilliant and creative achievement in Korean tra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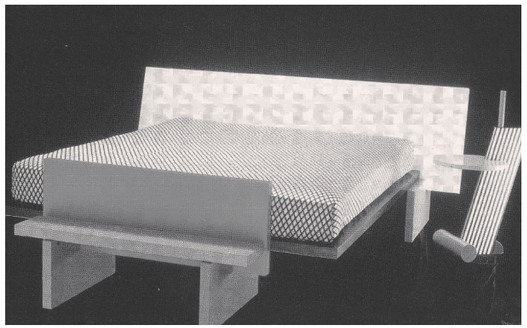
If Seokguram is closely examined, we will be able to realize that a masterpiece is the result of the unity of cultural competences during the contemporary era, not just the result of the accumulation. We can also understand that the major change we are now facing is to establish and unite fundamental tradition and culture for creativity instead of just improving creativity itself and creating new culture.

창의력의 사회적 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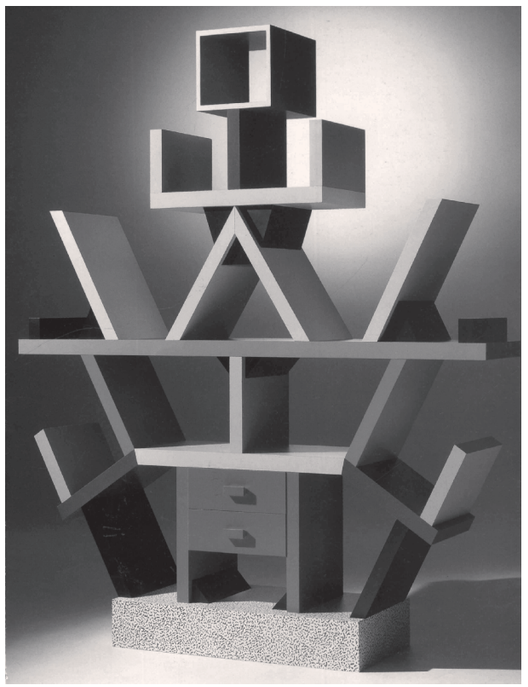
역사에는 사회적 창의력이 개인의 창의력을 이끄는 시기가 많이 발견된다. 앞서 말한 르네상스 시기는 물론이고, 독일의 바우하우스, 이탈리아의 멤피스가 활동하던 시기들은 시대가 천재들을 만든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일 신라 초기, 17-8세기 조선 후기 등이 이런 시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모두 앞 시대에 축적된 역량들을 단순히 합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총화 시킴으로써 찬란한 창조의 시대를 이룩하였다. 이런 시대를 잘 살펴보면 시대의 역량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창의적 역량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찬란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폭넓은 혜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의력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다듬을 수 있다. 우리의 역사적 전통 중에서 눈부신 창의적 성취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석굴암이다.

석굴암을 잘 살펴보면 걸작이란 단지 천재적인 창의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문화적 역량들이 총화 되어 나타나며, 걸작이란 문화적 역량들이 단순 축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재탄생 했을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단지 창의력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창의력의 단초가 될 전통과 당대 문화를 확립해야하고, 또한 그것을 총화 시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멤피스 그룹의 작품들
Pieces of Memphis Group



석굴암의 전경
A complete view of Seokgu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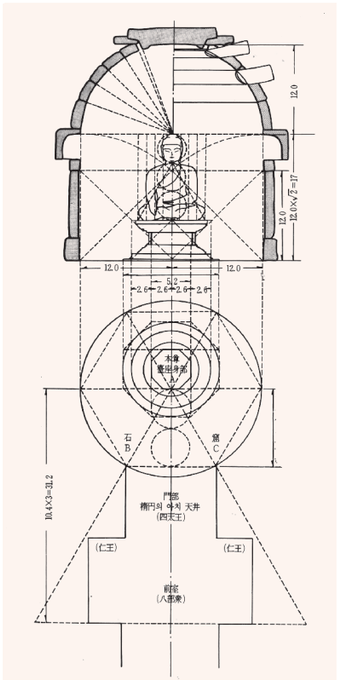
Seokguram Grotto:
Convergence of Works
by Various Cultures

The Traces of Western Culture in Seokguram

Seokguram is a stone temple built by Kim Dae-seong during the late United Silla period. It is the most precious cultural heritage in Korea. Some people even insist that Seokguram must be protected even at the risk of all other cultural properties. What makes this grotto temple so special? Is this because it is a mysterious temple built at the peak of Mt. Tohamsan?

Seokguram is more than just a cultural heritage that should be well preserved. We need to see its intrinsic value. If this grotto temple is viewed as a single design that keeps a wide range of cultural competences, however, its cultural excellence and the remarkable creativity of ancestors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can be felt.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y were fully aware of the most precious culture in the world at the construction of Seokguram and created this brand-new masterpiece based on their own interpretation.

At a glance, Seokguram just looks like a perfectly shaped work of art. In fact, it is easy to think of this masterpiece as the result of Buddhist culture from China. Once you take a closer look at it, however, you realize that you are totally wrong. After all, Seokguram embodies the essence of many contemporary cultures including Greek, Roman, Indian and Chinese cultures.



석굴암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비례체계
The precise and systematic
proportion system of Seokguram

CHOI, Gyeong-w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apanese architect Miyoji Yoneda was absorbed in the grounds plans of typical temples, the façade and grounds plans of stone pagodas from the Korean Three Kingdoms and United Silla periods, and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Seokguram. In 1940, after a seven (7) year field investigation on the grotto temple, he released a paper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Seokguram. In this paper, he used Dangcheok (Tang ruler), the reference scale of the Tang Dynasty, for Seokguram. With Dangcheok, he proved that the architectural and sculptural elements of Seokguram were harmoniously balanced based on the advanced proportion system. For example, he discovered that the radius and width of the entrance to the main chamber and the height of a domed ceiling were all 12 Dangcheok.

What is fascinating is the use of the diagonal length of the square whose side is 12 Dangcheok in terms of a proportion of the façade in a stone chamber. This indicates that advanced architectural methods like those of the golden proportions of the famous ancient Greek temple, the Parthenon, were used on Seokguram, not just precise mathematical ratios.

Despite a huge time and space gap, very similar aesthetic values were realized. In Korea, there is almost no cultural heritage that is as perfectly balanced as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from the mathematical point of view. The two cultural assets are cultural heritages to be very proud of as well as examples of extremely exotic culture.

다양한 문화의
융합으로 만들어진 석굴암

석굴암에 담긴 서양 문화의 영향

석굴암은 김대성이 통일신라 전성기에 창건한 절로서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야 할 귀한 유물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모두 파괴되어 없어지더라도 석굴암 하나만 있으면 세계적인 문화민족으로 대접받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이다. 하지만 왜 그런 것일까? 토함산 꼭대기에 만들어진 신비로운 절이기 때문이라서 그런 것일까? 석굴암을 단지 보존되어야 할 유물로서만 대하면 절대 그 안에 담긴 가치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폭넓은 문화적 역량들이 저장된 하나의 디자인으로 대하면, 석굴암 속에 녹아있는 당대 최고의 국제적 문화와 그것을 탁월하게 자기 식으로 집대성한 통일신라 선조들의 뛰어난 창조적 능력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석굴암을 볼 때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석굴암을 만든 통일신라시대의 선조들이 당대 최고의 국제적 문화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을 자신들에 맞게 재조정해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냥 보면 석굴암은 그저 완벽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예술품으로만 보인다. 특히 당시 중국 당나라로부터 수입한 불교문화의 한 결과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석굴암 안에는 당대의 여러 나라의 문화, 예를 들면 그리이스, 로마, 인도, 중국 문명들이 고루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eokguram Grotto:
Convergence of Works
by Various Cultures

According to art historian Gang U-bang, the precise mathematical proportion, especially the golden ratio, was applied to the grounds plans of temples and the grounds plans and façade of stone pagodas from the 7th to 9th centuries. Before and after the Seokguram era, no mathematical proportions have been detected in Korean cultural heritage. As a matter of fact, Korean culture tends to avoid strict mathematical order.

The mathematical approach implemented in Seokguram was not an accident. The aesthetic approach during the Greek era was precisely reflected. It is astonishing that a typical western work of art is found in Korea where natural beauty is the mainstream. It appears that our ancestors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were very open to foreign culture and tradition with a precise and keen artistic point of view.

In addition, we wouldn't have known that the proportional system of the famous ancient Greek heritage was applied to Seokguram if the grotto temple had not been so precisely built. Professor Nam Cheon-u measured Seokguram and found no errors (even less than one millimeter) at all. He was stunned by the technical perfection of Seokguram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We tend to underestimate Seokguram as an ancient cultural property. However, this grotto temple, in keeping with our ancestors' state-of-the-art engineering methods, is very significant in terms of technical accomplishments.

일본의 건축기사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라는 사람은 일제시대 때 7,8세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사찰의 평면과 석탑의 입면과 평면 계획, 그리고 석굴암의 건축조영계획에 대해 심취해 있었다. 석굴암을 7년 간 실측 조사한 후 1940년에 그는 석굴암 조영계획에 관한 논고를 발표 하였는데, 그 논문에서 그는 석굴암의 디자인에는 당척(唐尺) 즉, 당나라의 표준척도가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석굴암은 당척을 기준으로 고도의 비례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아울러 입증했다. 예컨대 석굴암의 주실의 반경과 주실의 입구의 폭은 12당척이고, 석실의 입면에서 둥근 돔 천정의 높이도 12당척이란 걸 밝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석실의 입면의 비례에서 12당척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석굴암이 단지 치밀한 수학적 비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이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사용한 황금비례의 법칙과 같은 건축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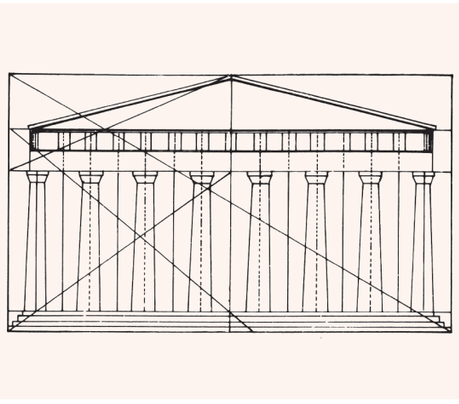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지역에서 동일한 미학적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석굴암이나 불국사처럼 엄밀한 수학적 비례로 이루어진 유산은 거의 없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재이지만 우리나라 문화 전체로 볼 때 불국사나 석굴암은 대단히 이질적인 문화라 할 수 있다. 미술사학자 강우방의 견해를 따르면 사찰의 평면이나 석탑의 입면, 평면에 엄밀한 수학적 비례, 특히 황금비례가 적용되는 것은 7세기에서 9세기에 걸친 시기에만 나타나는 추세였다. 석굴암 이전이나 이후로 수학적 비례는 찾아 볼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우리나라의 문화는 엄격한 수학적 질서를 일부러 회피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것을 보면 석굴암에 구현된 수학적 접근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이스 시대에 발전된 미학적 접근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예술 속에서 가장 서양적인 예술품이 있다는 것, 그것도 석굴암이 그렇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지만, 한편으로 통일신라시대 우리의 선조들이 당대에 성취된 국제적인 예술을 얼마나 정확하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잘 살펴볼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석굴암이 그리이스의 비례체계를 반영했다는 사실도 석굴암이 그만큼 정밀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남천우 교수는 석굴암을 측정하고 나서, 그 엄청난 돌을 깎아서 석굴을 만들면서도 10미터를 측정했을 때 단 1밀리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술적 완성도에 혀를 내둘렀다. 그 정도로 석굴암은 정교하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우리는 석굴암을 단지 오래된 유산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석굴암은 이처럼 과거 우리 선조들의 최첨단의 공법이 들어있는 기술적 성취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석굴암은 알다시피 인도나 중국의 석굴을 모방하여 만든 인공석굴이다. 우리나라의 바위는 너무 단단하여 석굴을 파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예 돌로 인공적인 집을 짓고 그 위에다 흙을 덮어 인공 석굴을 만든 것이 석굴암인 것이다. 이때 석굴암의 천정은 반구형의 돔



파르테논 신전의 황금비례
The golden ratio of the Parthenon in Ath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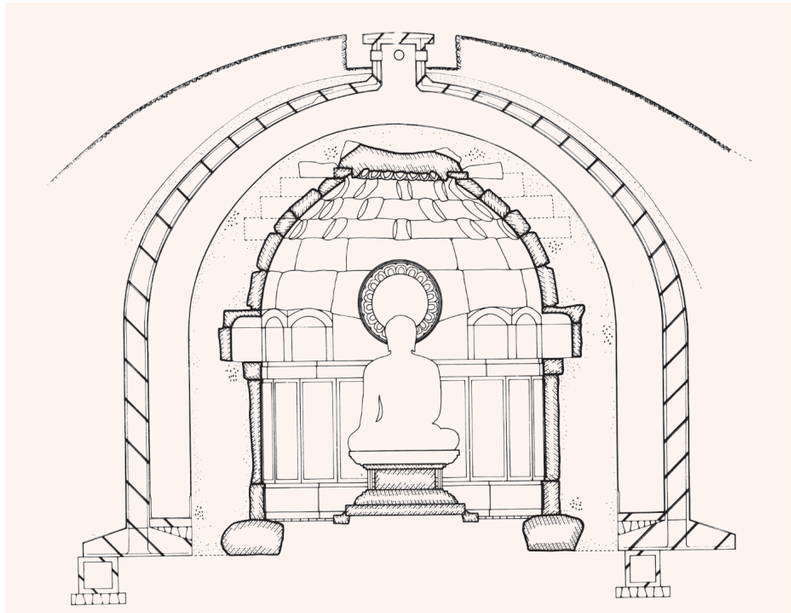
수학적 비례 보다는 자연스럽게 휘어진
곡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고려청자
—
Goryeo Cheongja (Celadon) showing off
the natural beauty of graceful curves
instead of mathematical proportions

형상으로 디자인되었다. 가운데의 커다란 본존불을 아무런 기둥 없이 안치시키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돔 구조는 로마 건축의 특징을 대변하며, 로마시대에 와서 구조적으로 완전한 틀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소규모로 실현되다가 로마시대에 들어오면 발전된 토목공학 덕분에 판테온 신전 같은 거대한 규모의 돔 구조가 실현가능하게 된다. 당시 돔 천정은 지금의 돔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이고 환상적인 것이었다. 그 넓은 장소를 기둥 하나 없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지붕을 씌울 수 있다는 것은 마술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돔은 지금까지도 로마의 토목기술이나 건축을 상징하는 최고의 구조로 일컬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서 개발된 신비로운 돔 지붕이 거의 지구 반대편, 깊은 산골짜기 안 석굴암에 그대로 실현되어있는 것이다. 교통과 통신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당시에 벌써 서양에서 발전된 문화들이 드넓은 중앙아시아를 건너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까지 정확하고 높은 수준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춘추전국시대 말기에서 전국시대에 이르는 동안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문명과 로마로 대표되는 서양의 문명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춘추 전국시대에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거기에 따라 대규모의 유통이 일어나고, 도시가 정비되고 교통망이 발달함에 따라 동서의 문명은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게 된다.



석굴암의 돔 구조
The domed structure of Seokguram

넓은 실내 위를 기둥 하나 없이 지붕을 씌운 돔 구조의 판테온 신전
—
The magnificent domed Pantheon without any pillars

Seokguram Grotto: Convergence of Works by Various Cultures

As is widely known, Seokguram is an artificial grotto which looks like an Indian or Chinese rocky cavern. Because the rock was too hard to dig a cave in it, an artificial chamber was built with stones. Then, it was covered with earth. A domed ceiling was essential to enshrine a huge main Buddha in the middle without any pillars.

Domed structures are the typical architectural pattern of Rome. Even though domes were discovered prior to the Roman era, they were finally perfected (ex: the Pantheon) during the Roman period because of advanced civil engineering technology. At that time, a domed ceiling was the most stunning and innovative work of art. It was like magic to have a ceiling without any columns in a huge building. Therefore, the dome is known as the finest and the most typical architectural pattern of Rome.

Surprisingly, this mysterious domed ceiling was discovered in a grotto in a mountain valley on almost the exact opposite side of the earth. It is a miracle considering the exacting restoration of advanced western culture despite poor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at that time.

This masterpiece came about because of active cultural exchange between East Asian civilization (Chinese culture) and western civilization (Roman culture) from late Spring and Autumn & Warring States period to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the Spring and Autumn & Warring States period, the monetary economy flourished with a huge scale

이것이 나중에 한(漢)나라에 이어져서 실크로드로 발전된다. 실크로드는 한나라와 로마가 교역하던 무역로였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석굴암에 표현된 엄격한 수학적 비례나 돔 구조가 중앙아시아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있다고 하더라도 석굴암만큼 완성도가 높은 문화재는 없다. 실크로드의 양쪽 끝에서만 이런 완성된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미스테리한 사실을 두고 요시미츠 츠네오 같은 사람은 신라가 로마문화로 이루어진 나라였다는 아방가르드(?)한 학설을 내놓기도 했다. 아무튼 석굴암에는 우리가 그냥 보는 것과 달리 서양의 문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대단한 완성도를 가지고 구현되어있다. 이것을 보면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때의 우리선조들은 그리이스나 로마의 문화의 정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파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석굴암에 담긴 인도 문화의 영향

미술사학자 강우방은 “석굴암에 응용된 조화의 문”이라는 논문에서 석굴암의 본존불의 크기와 비례가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인도의 보드가야의 마하보디사원을 방문하였을 때 당척으로 잰 불상의 크기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했다. 현장이 쓴 “대당 서역기”에 ‘불상의 높이는 11.5자, 양 무릎 사이가 8.8자, 양 어깨 사이가 6.2자였다’란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치수는 석굴암 본존불의 높이가 11.53 당척이고 양 무릎의 너비가 8.8자, 어깨 너비가 6.6자인 것과 매우 흡사하다. 오히려 수학적 비례의 규칙성은 석굴암의 본존불이 더 정확하다. 이것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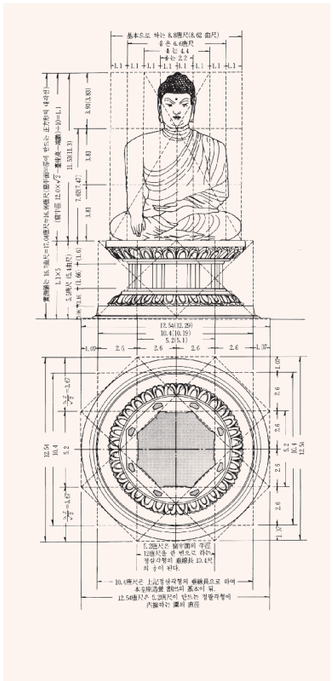
석굴암의 본존불은 크기까지도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만리타국 인도에 그 근거를 정확하게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하보디 사원은 싯달타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 장소에 지어진 절이라고 한다. 석굴암 본존불이 표본으로 삼을 만 했던 것이다. 석굴암이 굳이 12당척을 기준으로 디자인 되었던 것은 인도 불상의 크기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통일신라의 불상이 중국의 불상을 거치지 않고 인도의 불상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만 무조건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되지만, 문화적으로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던 8세기 신라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개방되어있었다. 수많은 유학승들이 중국과 인도를 직접 방문하면서 외국의 문물을 흡수했는데, 혜초와 같이 무수히 많은 승려들은 인도에 까지 가서 성지를 직접 방문하면서 인도의 오리지널 불상들을 많이 보았다. 통일 신라의 불상들이 당나라에 비해 완성도가 높은 것은 인도를 비롯한 중국의 불상들을 모두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인도나 중국의 불상들을 단순 모방만 했다면 그런 경지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당대 최고의 문화적 성취들을 충분히 섭취하려 했던 선조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자신 만의 새로운 스타일로 녹여내는 선조들의 지혜에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석굴암 본존불이 인도의 치수를 그대로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인도의 불상의 특징 위에 자기 미학으로 충만한 불상을 완성해 놓고 있는 점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of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urban system and roads were greatly improved. Therefore,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West civilizations took place spontaneously. Later, this cultural exchange route evolved into the Silk Road.

The Silk Road was a vast network of trade routes that stretched from the Han Dynasty in the East to ancient Rome in the West. However, it is very rare to find strict mathematical proportions or domed structures in Central Asia. Even though they have been discovered, they are not as perfect as Seokguram. After all, complete and perfect culture only existed at both ends of the Silk Road. Tsuneo Yoshimitsu released the Theory of the Avant-Garde that insisted that Silla was a country filled with Roman culture to explain this mystery.

After all, Seokguram reached the great perfection of western culture. In other words, our ancestors were fully aware of the essence of Roman culture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석굴암 본존불의 크기와 비례
The size and proportions of the main Buddha in Seokguram

석굴암에 담긴 중국문화의 영향

석굴암 본존불의 의상이나 본존불 뒤에 만들어진 나한이나 11면 관음보살과 같은 조각상들의 의상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당나라에 이르면 불상의 인상이 균형 잡히고 비례의 안정감을 꾀하면서 다소 세련된 이미지를 갖춘다. 하지만 석굴암이 이 정도로만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이다. 중국에서도 석굴암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불교건축은 찾아 볼 수 없다. 가장 가까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통일신라가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은 석굴암의 특징 이전에 통일신라 문화전체의 특징이 어떠했던가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이 당나라의 일방적인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불상의 인상이 가지는 이상적인 모습 때문이다. 중국의 불상들은 세련된 용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인의 풍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가장 잘 생겼다고 여겨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석굴암의 본존불이나 그 뒤에 있는 여러 상들은 신라인을 직접적으로 닮지 않았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닮기 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세계 모든 지역의 불상이 지향했던 목표는 이러한 이상적인 형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실지로 성취한 문화권은 그렇게 흔치 않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의 불상들은 거의가 현세를 초월한 가장 이념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와 같은 독일의 미술사학자는 중국의 미술이 과장과

세련된 용모를 가진
중국 용문 석굴의 불상
—
A stylish and refined Buddhist statue in Longmen Caves

CHOI, Gyeong-won

The Traces of Indian Culture in Seokguram

In his paper, “the Harmoniously Balanced Gate of Seokguram,” art historian Gang U-bang said that the size and proportions of the main Buddha in Seokguram were perfectly matched with the Buddha in Mahabodhi Temple in Bodh Gaya, India. According to Da Tang Xiyu Ji (Great Tang Dynasty Record of the Western Regions) written by a Chinese Buddhist monk during the Tang Dynasty, the Buddhist statue in Bodh Gaya was 11.5 Ja (Korean foot; a unit of length, 30.3cm)-tall with 8.8 Ja between the knees and 6.2 Ja between the shoulders. These figures are almost exactly the same as the figures of the main Buddha in Seokguram (11.53 Dangcheok in height, 8.8 Ja between the knees, 6.6 Ja between the shoulders). In terms of the regularity of mathematical proportions, the main Buddha in Seokguram is more accurate.

The main Buddha in Seokguram was built based on the remote Indian culture. The Mahabodhi Temple is built on the site where Siddhartha Gautama reached enlightenment underneath a pipal (fig) tree. Therefore, the main Buddha in this temple was worthy of being a model for the main Buddha in Seokguram. After all, the length, 12 Dangcheok, was closely related with this Indian Buddha.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he Buddhist statues of the United Silla period were directly related to the Buddhist images in India. Many people believe that a lot of Korean Buddhist statues were greatly influenced by China. In the 8th century when Silla reached its peak in terms of culture and civilization, Korea was greatly open to the world. A number of monks visited China and India and brought foreign civilization to Korea. Some of them visited the sacred ground in India and received inspiration from the Indian Buddhist statues.

Seokguram Grotto:
Convergence of Works
by Various Cultures

It appears that United Silla was superior to the Tang Dynasty in terms of perfection of the Buddhist statues. This is because the monks from United Silla were fully aware of the characteristics of Indian and Chinese Buddhist images. If these foreign Buddhist statues had just been imitated, United Silla would not have attained this high state. After all, our ancestors made their best efforts to reach a state of perfection. In addition, they were wise enough to create their own style based on their own tradition and culture. Even though the main Buddha in Seokguram is exactly the same as the Buddha in India in terms of dimensions, our ancestors remarkably created their own Buddhist statue.

완전한 이상적인 인물상을 표현하고 있는
석굴암의 11면 관음보살상
—
The Eleven-faced Avalokitesvara with
a perfect and ideal face in Seokguram

가장 완벽한 이상적 인간형을 가진
밀로의 비너스
—
Venus de Milo with perfect human beauty

왜곡된 미술형식을 표방하고, 일본의 미술은 감정에 차 있고 틀에 박힌 미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미술은 고전미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술을 그리이스 미술에서 볼 수 있는 정적과 절도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였다. 서양 사람이 고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이스 미술과 비교하는 것은 대단한 찬사이다.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눈에 보이는 것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적으로 구현하려고 하였다. 밀로의 비너스 같은 헬레니즘 조각이 지향하려 했던 것도 현실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이상적인 사람이었다. 밀로의 비너스처럼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밀로의 비너스는 살아있는 사람 같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인다.

석굴암의 부처나 보살들이 보여주는 어떤 초월성이나 완벽함은 밀로의 비너스에서 구현된 고전적인 이상형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양식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바가 없지는 않으나, 완성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을 넘어서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 석굴암 조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The Traces of Chinese Culture in Seokguram

Seeing the clothing pattern of the main Buddha and the sculptures of Buddha's disciples and the Eleven-faced Avalokitesvara in back of the main Buddha, it appears that Seokguram Grotto was influenced by China. During the Tang Dynasty, China reached a state of very stable and refined patterns in Buddhist statuary. In China, there are no Buddhist sculptures that are similar to Seokguram in terms of structure. The fact that United Silla was able to keep a certain amount of distance from the direct influence of China despite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closen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may be grounds to newly examine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United Silla.

Considering the unique features of the Buddhist images of United Silla, it seems that it was not entirely influenced by the Tang Dynasty. Even though Chinese Buddhist images look very stylish and refined, they have their own patterns. However, the main Buddha and other statues in Seokguram look somewhat different. They look like ordinary humans and ideal human beings at the same time. After all, the world tried to have the ideal Buddhist statue just like the Buddhist images in Seokguram. However, there are few civilizations that were able to attain this state of the ideal Buddhist images. On the contrary, the Buddhist statues from United Silla have transcending ideal patterns.

German art historian Andreas Eckardt said that Korea pursued classical beauty while China focused on exaggerated and distorted patterns, and Japan showed routine aes-

thetic beauty. He praised Korean fine arts for the tranquility and integrity also found in the Greek arts. Being compared to the ancient Greek arts is a great compliment.

For a long time, western artists have tried to realize an invisible ideal beauty. The classical and Hellenistic sculptures of ancient Greece, such as Venus, pursued a transcending ideal human being. In fact, Venus does not exist in the real world. Venus looks beautiful because it shows the most ideal aspects of a human being, not because it looks like a living human.

The transcendence and perfection shown in the main Buddha and Buddha's disciples in Seokguram can be compared to the classical beauty of Venus de Milo. Even though Seokguram was influenced by China in terms of architectural patterns, its sculptures truly exceed China in terms of perfection.

Lessons from Seokguram in Regards to Creativity

From Seokguram, we can obtain many lessons with regard to creativity. First, the grotto temple displays the best contemporary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The Chinese and Indian cultures are understandable. However, the Greek and Roman cultures are unbelievable. Furthermore, the greatest cultural achievements in each civilization such

From Seokguram, we can obtain many lessons with regard to creativity. First, the grotto temple displays the best contemporary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석굴암에 담긴 창의성의 교훈들

석굴암에서 우리는 창의성에 관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석굴암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취된 당대 최고의 문화들이 컬렉션되어 있다. 중국이나 인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이스나 로마의 문화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우리 선조들은 그리이스 문화의 황금비례나 로마 건축의 돔, 세련된 불상 양식 등 각각의 문화권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문화적 성과들만을 골라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만한 사실이다. 석굴암을 창조하는 데에 소용될 수 있는 자양분들을 최고급 안목으로 최대한 확보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 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화적 자원들을 자기 식으로 재해석하여 이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창의적인 석굴을 디자인했다는 것이다. 재료는 외국 것들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철저히 자기 식으로 융합한 결과 완전히 새롭고, 그러나 완전히 통일신라적인 걸작을 만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창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주체적 관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종합예술학교 건축과 김봉렬 교수는 석굴암이나 불국사는 건축을 시작한지 39년 만에 완공을 보는데, 그것은 공사기간이 많이 걸렸다기보다는 계획과 설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적 성취들을 이처럼 완성도 높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은 납득할만하다. 그렇다면 석굴암을 창건한 김대성 같은 사람은 경주에 앉아있으면서도 그리이스, 로마, 인도, 중국의 문명들을 꿰뚫고 있는 세계적인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문화들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면서 이 세상에 없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했던 창조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추측할 수 있다. 비록 지금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격해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의 노력으로 탄생한 석굴암을 보면 창의성은 바로 이런 문화적인 역량을 꽃피우는 데에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창의력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최고의 문화적 자산을 확보해야 하고, 그 위에 자신만의 고유한 철학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A1

CHOI, Gyeong-won

as the golden proportion in Greek culture, the domed ceiling from Roman architecture and refined patterns from China are very fascinating. After all, the best of the best in the world has been taken advantage of in creating Seokguram.

Above all, our ancestors created a unique stone grotto that will never be found elsewhere in the world by creatively reinterpreting all these valuable cultural resources from around the world. Even though foreign materials were used, a perfect masterpiece of United Silla was created. In other words, it is a self-oriented perspective that is the most essential in creativity.

Kim Bong-ryeol, professor in the Dept. of Architecture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sists that the period of planning and design accounted for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39 years to complete Bulguksa Temple. It is totally understandable that it took quite a long time to create this work of perfection using the valuable cultural heritages from the around the world.
Kim Dae-seong, who planned Seokguram, must have been a world scholar who was fully informed of the Greek, Roman, Indian and Chinese cultures and civilizations even though he lived in Gyeongju, Silla. Furthermore, he reinterpreted these different cultures based on his own thinking and perspective. There is no doubt that he was a very creative person who dared to create the greatest work of art in the world.

From Seokguram, we can realize that creativity is essential to make cultural competence flourish.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collect and properly use the most valuable cultural heritage based on our own tradition and philosophy to let the creativity bloom. A1

References

- 원융과 조화
  강우방 / 열화당
- Infinite Interpenetration and Harmony / KANG, Woobang / Youlhwadang Publisher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 창작과 비평
- My Story of Exploration for Cultural Heritage / YOO, Hongjun / Changbi Publisher
- 로마문명의 왕국, 신라
  요시미츠 츠네오, 오근영 역 / 씨앗을 뿌리는 사람
- Kingdom of Roman Civilization, Silla / Yoshimitsu Tsuneo, Translation by OH, Geunyoung / Seedbook Publisher
- 시대를 담는 그릇 - 한국 건축의 재발견 시리즈
  김봉렬 / 이상건축
- A Caliber to fill in an era – the Series of Rediscovery for Korean Architecture / KIM, Bongryeol / Idea Image Institute of Architects
- 한국미학 시론
  권영필 외 /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 Current View of Korean Aesthetics / GWAN, Youngphil / Center for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